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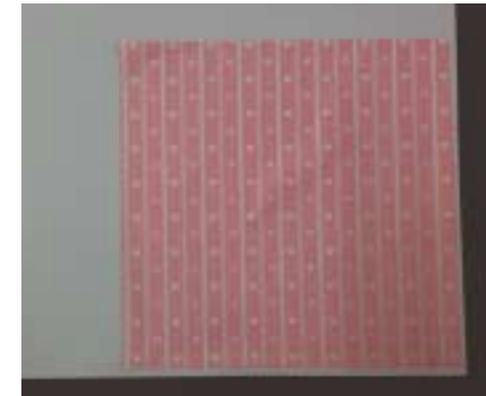
예수님의 사랑 목걸이

안지원

예수 성심 성월인 6월입니다. 한 달 동안 아이들이 예수 성심에 대해 잘 묵상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할 텐데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생활 속에서 자신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종종 떠올려 보도록 지도해 주세요. 아마 아이들에게 쉬우면서도 효과적인 묵상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만들어 볼 작품은 이러한 아이들의 생활 속 묵상을 도와주는 만들기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수님의 사랑 가득한 마음을 담은 '예수님의 사랑 목걸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준비물
 하트 모양 투명 반구(인터넷 상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무늬 색종이, 두꺼운 도화지, 수수깥, 가위, 풀, 본드, 칼, 연필, 네임펜, 색연필, 리본 끈, 글루건, 도화지 혹은 예수님 그림



① 두꺼운 도화지의 앞, 뒷면에 각각 다른 무늬의 색종이를 붙입니다.



② 하트 모양 투명 반구를 ①의 한쪽 면 위에 올려놓은 뒤, 테두리를 따라 그림니다.

③ 따라 그린 테두리 선보다 1cm가량 더 크게 가위로 오릅니다.

④ 도화지에 예수님을 그림니다. 기존에 있는 이미지를 사용해도 좋고, 아이들이 직접 그려도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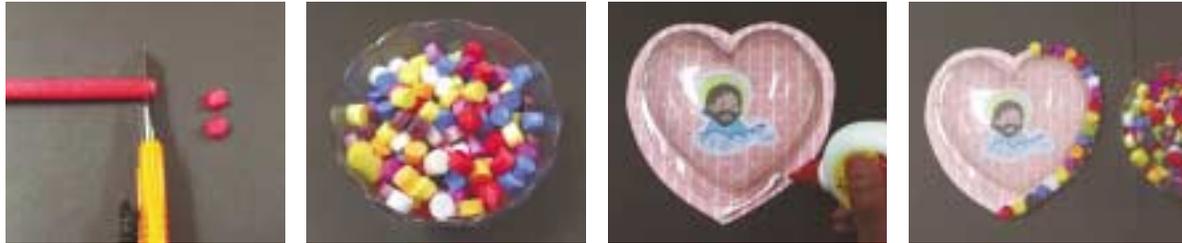
⑤ 완성된 예수님 그림을 가위로 오릅니다.(어린 아이들의 경우, 기존에 있는 이미지를 출력한 뒤, 네임펜으로 절취선을 그려 주어 오르게 해도 좋습니다.)

⑥ ③에서 오린 하트 모양의 한쪽 면에 예수님 그림을 붙입니다.

⑦ 다른 한쪽 면에는 예수님께 하고 싶은 말을 적습니다.



⑧ 사진처럼 예수님 그림이 있는 면에 하트 모양 반구를 글루건으로 붙입니다.(글루건 사용이 위험할 수 있으므로 교사가 도움을 줍니다.)



⑨ 수수깡을 5mm 길이로 자릅니다.

⑩ 자른 수수깡을 사진처럼 본드로 붙여 장식합니다.



⑪ 리본 끈을 적당한 길이로 잘라 뒷면에 테이프로 붙입니다.



완성!

tip

리본 끈을 짧게 잘라 붙이면 벽걸이 장식으로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안지원 사비나

천호 유치원 교사, 고덕동 성당 초등부 주일학교 교사를 거쳐 현재 서울대학교 초등부 9지구 교사연합회 월례교육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아이들이 하나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자신의 소명이라고 생각한다는 안 교사는, 가르치며 배운다는 생각으로 지금 이 순간도 행복하게 아이들과 함께하고 있다.